

**MIKA ROTTENBERG**

**RABBIT  
HOLE**

**A**

**미카 로텐버그:  
래빗홀**

**SJ**

**ASJC  
SCREENING  
PROGRAM**

**2023.11.  
21.-26.**

**C**

## 상영 시간표

### I. 14:00-15:12

〈스퀴즈(SQUEEZE)〉(2010) (20:00)

〈스파게티 블록체인(SPAGHETTI BLOCKCHAIN)〉(2019) (18:15)

〈보울즈 볼즈 소울즈 홀즈(BOWLS BALLS SOULS HOLES)〉(2014) (27:54)

〈메리스 체리스(MARY'S CHERRIES)〉(2004) (05:50)

### II. 15:30-17:05

〈스니즈(SNEEZE)〉(2012) (03:02)

〈리모트(REMOTE)〉(2022) (91:50)

- 작품명과 〈리모트〉의 대사는 작가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 상영작들은 모두 비디오 설치 작품들로 물리적으로 조정된 환경과 서라운드 사운드를 갖추고 반복재생되는 작품들입니다. 스크리닝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작가의 동의로 특별히 아트홀에서 이와 같이 상영됨을 안내합니다.

미카 로텐버그는 동시대의 자본주의 논리 이면에 위치한 생산과 노동의 영역을 주목한 작업을 이어왔다. 감각을 자극하는 화면 구성, 화면에 녹아든 응축된 개념들은 그녀만의 감각적 화법으로 면면이 화면에 담겨 있다. 《미카 로텐버그: 래빗홀》에서는 작가의 2000년대 초반 초기 작업부터 최근의 작업을 아우르는 6점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대립적인 개념들을 병치시키고 일상적 요소들을 뒤집어 감각적으로 작품을 재구성하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오늘날 사회의 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외진 공간, 논리적 인과관계를 벗어난 이동 경로와 시스템, 이유 모를 생산 활동과 때론 가학적인 만큼 고된 육체노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적 시각의 예측을 벗어난다. 목적과 가치 없이 돌아가는 이 생산 시스템은 시각 언어로 재현된 현실의 이면으로, 노동, 신체, 여성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실존의 영역을 작가의 감각적 언어를 통해 마주함으로써 익숙한 일상을 다시금 재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스크리닝 프로그램은 기획되었다.

작가는 실존하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생산의 현장을 가시화하기 위해 실재·허구, 실대상·메타포, 집단·개인, 생산·파괴, 수축·팽창, 소음·적막 등 의미가 대립되는 개념들을 한 화면에 담아낸다. 이들은 마치 보색 대비처럼 극명한 차이로 인해 서로의 의미를 증폭시키고 이성적 이해를 넘어선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전달력을 극대화한다. 이와 더불어 안과 밖, 위와 아래, 원인과 결과 등의 개념은 이성적 인과관계에서 벗어나 작품 안에서 병치되고 한 데 섞이면서 논리적 이분법을 해체하고, 논리와 이성이 아닌 감각과 신체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전달한다. 이 같은 특징이 돋보이는 작품 6점을 선별해 약 10년간의 터울로 상영 순서를 배치함으로써 그녀가 일관되게 말해온 작업 세계와 미적 전략을 고르게 살펴볼 수 있다.

상영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가만의 또 다른 특징은 작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의 도상으로 특정한 의도를 지닌 채 작품 곳곳에 자리하는데 작업물이 이동하거나 서로 다른 작업 공간이 이어지는 구멍, 터널, 물방울, 기포, 달, 눈, 시계 등이 그 예이다. 작품 속에 무심히 있는 구멍을 일상의 요소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시선이 이어져 나갈 때, 다시 말해 주목과 지속이 더해질 때 그 구멍의 원은 무한히 중첩되고 확장되어 현재의 차원을 벗어나는 문이자 통로로 기능하며 현실의 제약 너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작가의 희망을 내비친다. 이처럼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멍이 다른 차원으로의 문이자 이분법적 구분의 전복이 일어나는 지점이기에, 마치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져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듯, 작가의 작업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또다른 차원의 문을 마련해보고자 스크리닝 프로그램의 제목을 '래빗홀'로 정했다.

익숙한 일상의 뒷면을 주목한 미카 로텐버그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 소비의 이면에 자리한 생산 영역에서 노동, 신체, 여성을 찾았다. 대립항을 병치하고 이분법을 전복하는 감각적인 시각 언어를 통해, 보지 않거나 무감각하게 있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길 바라며 섬세한 조형 언어와 미적 전략으로 자신의 작업 세계를 구성했다. 로텐버그의 작업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트선재센터의 래빗홀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틈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린 지각의 문, 자신만의 래빗홀을 발견하길 기대한다.

미카 로텐버그, 〈스퀴즈〉, 2010, 단채널 비디오 설치,  
사운드, 디지털 C-프린트, 20분, 가변 크기.  
작가, 하우스어앤워스 갤러리 제공, © 미카 로텐버그.

어둡고 밀폐된 장소에서 기계장치가 돌아가고 전력이 발생하는 소리와 함께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 구멍을 매개로 연결된다. 서로 다른 인종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다국적 노동의 현장은 생산 시스템 속에 편입되어 공간을 초월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데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낯선 장소, 고립성, 과잉 생산, 생산 시스템 속 편입된 인간 노동, 무엇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이 생산 시스템은 작가의 조형 언어로 재현된 현 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작업으로 재구성된 글로벌화된 노동·생산·유통 구조는 자본주의 사회 이면으로 가려진 신체, 노동, 여성이란 요소를 강한 물성으로 가시화한다.

**PHOTO CREDIT**

Mika Rottenberg, *Squeeze* (Video Still), 2010

Single-channel video installation with sound and digital C-print, 20 min.

Dimensions variable

© Mika Rottenberg,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RODUCTION CREDITS**

Cast: Trixxter Bombshell; Bunny Glamazon; Rock Rose; Cara Fogel; Tongue; Linda, VK, Sheley, Lx and Lin from Refined Sparkling Nails & Spa Inc., New York; Mary Boone; Kathleen Boddington; Mariangelica Cuervo; Dolores Lopresti; Julia Schell; Martha and the Pick'n Clean Crew from Church Brothers Produce, Yuma, Arizona; Mahesh Manohan and workers from Boise Estate, Kerala, India.

Cinematography: Mahyad Tousi

Set Engineer: Quentin Conybeare

Prop Design and Special Effects: Katrin Altekamp

Sound Design: Ronen Nagel, Trim Postproduction

Production: Andrew Fierberg

Production Assistants: Paulina Bebecka, Henry Prince

Still Photography: Christopher Burke Studio

Acoustic Consultant: Steve Hamilton



미카 로텐버그, 〈스파게티 블록체인〉, 2019,  
단채널 4K 비디오 설치, 7.1 서라운드 사운드, 컬러,  
18분 15초, 가변 크기.  
작가, 하우스어앤워스 갤러리 제공, © 미카 로텐버그.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듯 만화경이 돌아가며 여러 음이 동시에 발생하는 투반 목노래(TUVAN THROAT SINGING)를 시작으로 다양한 소리와 색상, 여러 공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작업은 작가가 바라본 노동의 개념이 시각적, 청각적인 물리적 요소로 치환되었다. 재료를 다듬는 칼질, 요리하듯 가열되고 터지거나 녹아 없어지는 물질, 남성 몸단장, 틸름이 겹치는 압도적 크기의 대량 생산 기계의 모습 등에 담겨있는 각기 다른 노동의 현장은 다채로운 색상과 촉각적 화면 구성, 다양한 음역대의 투반 목노래 소리, 자율감각 쾌락반응(ASMR)을 야기하는 사물의 소리 등 감각을 간지럽히는 서로 다른 지각 요소들이 화면 안에서 부딪히며 밀도 높게 조합되어 있다.

**PHOTO CREDIT**

Mika Rottenberg, *Spaghetti Blockchain* (Video Still), 2019

Single-channel 4K video installation, 7.1 surround sound, color, 18:15 min.

Dimensions variable

© Mika Rottenberg,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roduced by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ronto; Arts at CERN, the arts program of the European Laboratory of Particle Physics, Geneva, with the support of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Geneva; Sprengel Museum, Hannover, with the support of Niedersächsische Sparkassenstiftung; and New Museum, New York

**PRODUCTION CREDITS**

Producer and Director of Photography: David Hollander (Fourth Density Productions)

Director of Set, Props, and Special Effects: Katrin Altekamp (4DEE Productions)

Cast: Tyva Kyzy (Choduraa Tumat, Aylanmaa Damyran, Sholbana Belek-aol), Tabia Wood,

Fatima Jamal, Tal Ben Menashe, Meandra Nel, David Stern, Paul Vranesovic, and Joshua Sullivan

Camera: Marcin Kapron, Marcus Brooks, and Yuri Burak

Digital Imaging Technician: Loïc de Lame (Laryenco Production)

Additional Production Support: John C. Warren (Brooklyn Image Productions)

Gaffer: Alan Hostetter

Sound Recording: Vasily Amochkin

Sound Design and Mix: Ronen Nagel and Nati Taub (Sound Around Studios)

Production Manager: Natalia Almada

Production Assistant and Special Effects: Jake Couri

Production in Russia: Masha Keder

Production in Switzerland: Mónica Bello and Arts at CERN

Production Intern: Madeleine Kozma

Special thanks to Green Thumb Farms



미카 로텐버그, <보울즈 볼즈 소울즈 홀즈>, 2014,  
비디오와 조각 설치, 27분 54초, 가변 크기.  
작가, 하우스어앤위스 갤러리 제공, © 미카 로텐버그.

어두운 밤 홀로 달빛을 비추며 신체와 연결된 장치들로 미지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여성,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빙고홀에서 무작위로 뽑히는 숫자를 보고 의미 없이 빙고 도장을 반복적으로 찍어대는 사람들, 군중 속에 홀로 잠들어 있다가 이따금 염력을 발생시키는 흑인 여성, 숫자가 적힌 공의 색깔대로 얼굴에 집게를 꽂는 남성의 모습은 논리적 인과관계를 추론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상하, 내외의 공간적 이분법과 합리적인 인과관계는 그녀의 작업 안에서 흐려지고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일상적 예측을 가능케 하는 논리와 이성의 영역을 벗어남으로써 감각과 신체를 통해 노동과 생산의 무목적성과 허실을 드러낸다.

PHOTO CREDIT

Mika Rottenberg, *Bowls Balls Souls Holes* (Video Still), 2014  
Video and sculpture installation, 27:54 min.  
Dimensions variable  
© Mika Rottenberg,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RODUCTION CREDITS

Cast: Enid Alicea, Sakeena Jordan, Garry Turner, and extras from West Side Bingo Hall  
Cinematographer: Eric van den Brulle  
Second Camera: Therese McPherson, Mahyad Tousi  
Assistant Camera: Igor Ibradic  
Art Department: Katrin Altekamp  
Assistant Director: Mitra Hemkat  
Line Producer: Natalie Campbell  
Jib Operator: Ian McGrew  
Lights: Alan Hostetter  
PAs: Elizabeth Jaeger, Tanner Cornacchini  
Hair and Makeup: Merria Dearman, Debbie Peiser  
Set: Joshua Pelletier, Zach Rockhill  
Steadicam: Aaron Brown  
Sound Designer and Mixer: Ronen Nagel, Nati Taub  
Additional Sound Recording: Paul Ruest, Argot Studios; Francisco LaTorre  
Color Correction: Omri Peled  
Special Effects: Eran Muskatel, EMU Visual Design  
Media Manager: Jillian Iscaro  
Intern: Chloe YinTzuHuang  
Special thanks to Belle Fisch and the staff of West Side Bingo Hall



미카 로텐버그, <메리스 체리스>, 2004,  
단채널 비디오 설치, 5분 50초, 가변 크기.  
작가, 하우스어앤위스 갤러리 제공, © 미카 로텐버그.

세 명의 여성은 서로가 구분된 공간에서 다른 일을 수행하지만, 이들은 수직적으로 하나의 구멍을 통해 연결되어 단일한 생산 시스템 안에서 작업하고 있다. 자신의 손톱을 기르고 잘라 전달하는 여성, 이를 받아 반죽으로 만드는 여성, 이를 다시 이어받아 마라스키노 체리를 만드는 여성은, 자신의 신체 전부를 사용한 생산 노동을 보여주며 생산 시스템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신체성과 물성을 보여준다. 또한 과장된 색상과 옷차림에서 느껴지는 유머,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상의 공간 같으나 볼수록 낯설게 다가오는 밀폐된 공간의 묘한 기괴함은 작품 안에서 서로 섞이면서 생산과 노동, 그리고 여성 신체의 긴밀하고 순환적인 관계, 그리고 육체적 고됨과 가혹성까지도 느끼게 한다.

PHOTO CREDIT

Mika Rottenberg, *Mary's Cherries* (Video Still), 2004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5:50 min.  
Dimensions variable  
© Mika Rottenberg,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RODUCTION CREDITS

Cast: Barbara, Rock Rose  
Cinematography: Aaron Young  
Sound Design: Paul Ruest



미카 로텐버그, <스니즈>, 2012, 단채널 비디오 설치,  
사운드, 컬러, 3분 2초, 가변 크기.  
작가, 하우스저앤위스 갤러리 제공, © 미카 로텐버그.

비즈니스맨을 연상케 하는 양복 차림의 남성들은  
옷차림과는 다르게 모두 코가 과하게 부풀어 있고 변형된  
신체 일부와 적막한 환경으로 긴장감을 조성한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이들은 고통스럽게 재채기를 반복하며  
신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데, 재채기 후 토끼, 전구,  
고깃덩어리를 무작위로 뱉어낸다. 연계성이 없어 보이는  
이 생산물들에서 개인의 기호 충족, 문명의 이기 향유,  
삶의 풍요 추구 등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적 단면을  
유추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없는 재채기를 통해 코 또는  
입으로 연관성 없는 물건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 이들의  
모습에서 특정 가치 없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자본주의 내 무가치한 소비재의 모습과 과잉된  
잉여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PHOTO CREDIT

Mika Rottenberg, *Sneeze* (Video Still), 2012  
Single-channel video installation, sound, color, 3:02 min.  
Dimensions variable  
© Mika Rottenberg,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 PRODUCTION CREDITS

Cinematography: Mahdi Lepart  
Cast: Édouard Achache, Gabriel de Pimodan, Gaetano Lucido  
Makeup Artist: Jérôme Jardin  
Sound Design and Mix: Ronen Nagel and Nati Taub (Sound Around Studios)  
Producer: Mitra Hekmat



미카 로텐버그, 마야드 투시, <리모트>, 2022, 2K 장편영화,  
1.85:1 평면 화면비율, 5.1 오디오, 91분 50초.  
작가, 하우스저앤위스 갤러리 제공,  
© 미카 로텐버그, 마야드 투시.

현재보다 더욱 발전한 기술 사회에서 사는 주인공은  
발전한 기술과는 달리 암탉 시계 타이머로 하루를  
시작하며 지금과 다르지 않은 가사노동으로 하루를  
보낸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온라인 방송을 보는 것인데 어느 날 방송 속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를 발견한다. 반복된 일상을 살아온  
주인공이 동그란 시계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주목하고 행동했을 때, 일상의 구멍을 발견하고 관심을  
두고 바라보았을 때 비소로 구멍은 문이 되고 동일한  
문제점을 느낀 이들과 연결되는 새로운 길로 연결된다.  
이 길의 종착점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삶의 부조리함을  
인식하고 공유하며 뜻을 함께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모여야 한다는 작가의 제안과 기대를 엿볼 수 있다. 그것의  
시작이자 연결지점으로서 작가는 구멍, 눈, 문, 통로의  
개념을 원의 도상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 PHOTO CREDIT

Mika Rottenberg & Mahyad Tousi, *REMOTE* (Film Still), 2022  
Feature film with 2K resolution, 1.85:1 Flat aspect ratio, and 5.1 audio.  
Duration: 91 minutes 50 seconds.  
© Mika Rottenberg and Mahyad Tousi, Courtesy the artists and Hauser & Wirth

#### PRODUCTION CREDITS(ABBREVIATED)

Directed by Mika Rottenberg & Mahyad Tousi  
Written by Mahyad Tousi  
Based on story by Mika Rottenberg & Mahyad Tousi  
Director of Photography: Nickolas Dylan Rossi  
Lead Cast: Okwui Okpokwasili, Joony Kim  
Supporting Cast: Pooya Mahseni, Nikita Tewani, Antonia Predovan, Yvette Mercedes, Hee Wan Kwon  
Editor: Mika Rottenberg  
Production Designers: Katrin Altekamp & Mika Rottenberg  
Costume Designer: Laleh Khorramian  
Hair & Makeup Artist: Segal Yehudai  
Producers: Mika Rottenberg & Mahyad Tousi  
Executive Producers: Okwui Okpokwasili, Mika Rottenberg, Madeline Warren  
Co-producers: James Lingwood, Anders Kold, Michael Goodin  
Line Producer: Jonathan Burkhart  
Associate Producers: Natalia Sofia Almada, Deville Cohen  
Casting by Damian Bao



## 미카 로텐버그

미카 로텐버그는 1971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생으로 이스라엘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욕의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학사 학위를, 컬럼비아 대학교 예술대학에서 2004년 MFA를 받았다.

현재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로텐버그는 현대 초자본주의 세계에서 노동과 가치 생산의 아이디어를 탐구하기 위해 영화, 건축 설치, 조각을 결합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편집 과정을 거친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만든 세트의 영상을 사용하여, 작가는 겉으로는 연관성이 없는 장소와 물건들을 연결하여 정교하고 전복적인 시각적 서사를 만들어낸다. 사실과 허구를 함께 엮으면서 작가는 오늘날 존재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터무니없음을 강조한다.

로텐버그는 2019 쿠르트 슈비터스 상을, 2018년에는 스미스소니언미술관 제임스 디키 현대 예술가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주요 개인전으로 시카고 현대미술관(2019), 뉴 뮤지엄(2019), 볼로냐 현대미술관(2019), 골드스미스 현대미술관(2018), 쿤스트하우스 브레겐츠(2018), 마이애미 배스미술관 (2017), 팔레 드 도쿄(2016)가 있다.

## 《미카 로텐버그: 래빗홀》

2023. 11. 21.-11. 26.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참여 작가: 미카 로텐버그

기획: 최한나(아트선재센터 큐레이터)

진행 보조: 이예인(아트선재센터

큐레토리얼 어시스턴트)

주최: 아트선재센터

글: 최한나

편집: 최한나, 이예인

그래픽디자인: 워크룸

© 2023. 저자, 아트선재센터.

이 리플릿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관람 시간

12:00-19:00(월요일 휴관)

입장료

25-64세: 10,000원

19-24세: 7,000원

9-18세: 5,000원

예술인패스 소지자: 7,000원

무료: 그 외 연령 및 장애인,

ICOM·CIMAM·서울시미술관협의회 카드 소지자

아트선재센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T. 02 733 8949

F. 02 733 8377

W. WWW.ARTSONJE.ORG